**“기업 사회공헌, 질적 변화 이뤄야”‥생산성본부, DJSI 국제컨퍼런스 개최**

<출처: 파이낸셜뉴스 2012-10-09>

**“기업 사회공헌, 질적 변화 이뤄야”‥생산성본부, DJSI 국제컨퍼런스 개최**

기업 사회공헌활동이 양적팽창에서 벗어나 질적 변화를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동안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사회공헌 금액의 대부분을 자사 재단 출연에만 사용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생산성본부와 글로벌 금융정보 제공기관인 S&P다우존스 인덱스, 지속가능성 평가 및 투자기관 SAM은 9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2012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국제컨퍼런스'를 열었다.  
  
'기업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사회적 변화'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S&P 다우존스 인덱스 알카 배너지 부회장, CECP(Committee Encouraging Corporate Philanthropy) 마가렛 코디 위원장 등 해외 VIP와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학계, 정부기관 등에서 총 500여명이 참관했다.  
  
이날 행사에선 높아진 기업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에 따라 기업 사회공헌에 대한 목적과 당위성, 전략적 사회공헌이 어떤 형태인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생산성본부 진홍 회장은 "시대적 키워드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성과로 옮겨가고 있다"며 "국내기업들이 시대적 변화를 인식하고 보다 근본적인 사회적 책임을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전문 보기

<<http://www.fnnews.com/view?ra=Sent0601m_View&corp=fnnews&arcid=201210090100060950003785&cDateYear=2012&cDateMonth=10&cDateDay=09>>

>

**하나 사회책임투자펀드(SRI) 상품 출시**

<출처: 가톨릭뉴스 2012-10-10>

**하나 사회책임투자펀드(SRI) 상품 출시**

**사회적 책임투자 정신에 걸맞아**

그리스도교 윤리와 가치관을 반영한 사회책임투자펀드(SRI) 상품이 출시됐다.

기업책임시민센터는 하나UBS자산운용과 손잡고 사모펀드 형식으로 SRI 상품인, ‘하나UBS아름다운코리아사모증권투자신탁’을 지난 4일부터 팔기 시작했다.

기업책임시민센터 이창봉 사무총장은 <가톨릭뉴스>에 이 펀드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다른 사회책임펀드(SRI-Fund)와 달리, “그리스도교 윤리관을 적극 반영”해 생명을 해치는 상품의 생산 및 판매에 연루된 기업의 주식과 반도덕적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한 국가나 공공기관의 채권에는 투자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사회책임투자 펀드 상품은 투자자 수가 50인 미만으로 제한된 사모펀드 형식이며, 투자원본에 대한 위험을 최대한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도록 국공채 70퍼센트, 주식 30퍼센트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기사전문 보기 < <http://korea.ucanews.com/2012/10/10/201210w1001/>>

**“사회책임 지출은 장기적 투자라는 인식 필요”**

<출처: 한겨레뉴스 2012-10-17>

**“사회책임 지출은 장기적 투자라는 인식 필요”**

**전광우 국민연금 이사장 축사**

시장의 역동성에 힘입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경제는 호황기를 맞았지만 반복적인 위기의 여파로 양극화 심화와 같은 부작용을 낳게 됐다. 동시에 공정한 자본주의 패러다임 요구 역시 높아졌다.

이런 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흐름이다. 공자는 “부귀는 누구나 바라지만 정당하지 않으면 얻지 말라”고 했다…

기사전문 보기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56345.html>>